

원저

교통사고 환자 120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이지은* · 정효근* · 류충열* · 조명래* · 위준* · 류미선* · 김자영**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국립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Abstract

The Clinical Study on 120 Cases with Traffic Accident

Lee Ji-eun*, Jung Hyo-keun*, Ryu Chung-ryul*, Cho Myoung-rae*, Wi Jun*,
Ryu Mi-seon* and Kim Ja-young**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Dep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National Medical Center

Objectives :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ake a survey of the effective way of the Oriental medical care and to enlarge the range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about traffic accidental patients.

Methods : In following research, we surveyed 120 patients of traffic accident who were hospitalized in Dong-Shin Oriental Medical Hospital from October, 1, 2007 to August, 20, 2008 according to medical chart.

Results :

1. In distribution of gender and age, the rate of male was 35.8%, that of female was 64.2% and the majority of the patients were twenties and thirties.

2. In the traffic accident patterns, the most was car crash from behind(61.7%) and after traffic accident, 75 patients(62.5%) visited our hospital for oriental medical treatment in less than 5days.

3. 46 patients(38.3%) choose the oriental medical treatment for the primary care and after medical care, 36 patients(31.7%) visited our hospital due to dissatisfaction of current treatment and maintained pain.

4. Partial pain was the chief complaint and the most of painful parts was neck(76.7%), followed by low back(69.2%).

5. Though radiation test, the most was cervical spine sprain(76.7%), followed by straightening of lumbar spine(66.7%).

6. In the periods of admission, less than 7 days was the most(53.3%), followed by less than 14 days(35.9%).

· 접수 : 2008. 11. 15. · 수정 : 2008. 12. 1. · 채택 : 2008. 12. 3.
· 교신저자 : 이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동신목동한방병원 침구과
Tel. 02-2640-2700 E-mail : nophy@hanmail.net

7. The treatment was effective to 93 patient out of 106 who had been hospitalized for less than 14 days.

Conclusions : This data suggested that the Oriental medical care could be more effective treatment about traffic accidental patients without surgical injury.

Key words : Traffic accident, Clinical study, admission

I. 서론

교통사고는 차량을 수단으로 공간적으로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람과 사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¹⁾이다. 현대 사회는 교통 문화가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시 발생된 골격 손상, 연조직 손상, 타박 및 전신적 증후 등을 가리켜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이라 부르며²⁾ 제반증상이 일정 기간 경과하여도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상증상을 총괄하여 교통사고 후유증이라 한다³⁾.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추세를 보면 사망자보다 경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⁴⁾.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창상 및 감염 등 개방성 손상에 있어서는 기존 의학적인 치료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단순 경추부 염좌나 요추부 염좌와 같은 경우 양방 검사상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⁵⁾.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은 물리치료와 소염진통제를 이용한 양방치료와 달리 한의학에서는 외과적 증후군, 즉 落傷, 落馬, 打撲, 打撲, 蓄血, 血結, 瘀血骨折, 脫臼 등이 다루어져 왔고, 이들 증후군에 대하여 氣와 血의 관계 및 氣滯, 瘀血이라는 병적 개념을 도입하여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하여 왔다⁶⁻⁸⁾.

그간 김⁹⁾, 신¹⁰⁾ 등이 한방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방치료와 통계를 다루었으나 최근의 통계보고가 미비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동신목동한방병원 침구과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한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환자군의 분포별 특징과 주소증, 통증부위별 분포, 한방치료를 통한 호전도 등을 알아보고 향후 교통사고 한방보협적용 관련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한 기초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동신목동한방병원 침구과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치료한 환자 120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분석방법

동신목동한방병원에 입원치료 하였던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 120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누고 분석 관찰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 ① 성별 및 연령별 분포
- ② 사고 유형별 분포
- ③ 교통사고 후 본원 내원까지의 기간별 분포
- ④ 내원형태별 분포
- ⑤ 내원동기별 분포
- ⑥ 통증부위별 분포
- ⑦ 방사선 진단소견별 분포
- ⑧ 주소증별 분포
- ⑨ 입원기간별 분포
- ⑩ 입원기간별 치료성적 분포

3. 조사대상의 치료

조사대상 120명 중 98명은 기본치료만 시행하였으며, 22명은 기본치료와 견인치료를 함께 시행하였다.

1) 기본치료

침구치료, 부항요법, 물리치료(ICT, M/W), 한약치료(當歸活血湯, 雙金湯加五加皮)

2) 견인치료

슬링운동^{11,12)}

4. 효과 판정

치료성적의 판정은 환자의 퇴원시점에 일치하여 윤¹³⁾과 강¹⁴⁾의 방법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 ① 優秀(Excellent) : 自覺症狀 및 運動障礙의 消失 或 70% 이상의 改善
- ② 好轉(Improved) : 自覺症狀 및 運動障礙가 30-70% 사이에서 改善
- ③ 微好轉(Mild improved) : 自覺症狀 및 運動障礙가 30% 이하에서 改善
- ④ 不良(Failure) : 自覺症狀 및 運動障礙가 別無變化 或 惡化

Ⅲ. 분석 및 결과

1. 연령 및 성별 분포

총 120명의 환자 중 성별분포는 남자가 43명(35.8%), 여자가 77명(64.2%)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1:1.8의 비로 더 많았으며,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28명(23.3%), 30대가 28명(23.3%), 40대 27명(22.5%)이었고 50대 16명(13.3%), 60대 이상은 14명(11.6%)이었다(Table 1).

2. 사고유형별 분포

대상 환자 120명 중 사고 유형별 분포는 차량 간

Table 1. Distribution of Gender and Age

Age	Male	Female	Total(%)
0-20	3	4	7(5.8)
21-30	9	19	28(23.3)
31-40	15	13	28(23.3)
41-50	7	20	27(22.5)
51-60	4	12	16(13.3)
60-	5	9	14(11.6)
Total(%)	43(35.8)	77(64.2)	120(100.0)

충돌에 의한 경우가 103명(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충돌형태는 후방충돌 74명(61.7%), 전방충돌 15명(12.5%), 측방충돌 14명(11.7%) 순으로 후방충돌의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는 11명(9.2%)이었으며 또한 버스 급정거로 인한 버스 내 넘어짐 등의 기타 유형이 6명(5.0%)이었다(Table 2).

3. 교통사고 후 본원 내원까지의 기간별 분포

대상 환자 120명 중 교통사고 후 본원 내원까지의 기간별 분포는 사고 후 5일 이내가 75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6-10일 이내가 21명(17.5%), 사고당일 12명(10.0%) 순이었다. 또한 11-20일 이내 내원하는 환자는 7명(5.8%)이었으며 21일 이상이 지나 내원하는 환자는 5명(4.2%)이었다(Table 3).

4. 내원형태별 분포

대상 환자 120명 중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경우가 74명(61.7%)이고, 본원으로 초진한 사례가 46명(38.3%)이었다.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경우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만 하고 내원한 경우가 27명(22.5%)에 달했고, 타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Table 2. Category of Traffic Accident Patterns

Total(%)	Category of Traffic Accident patterns					
	Car to car			Car to person	Car to other materials	The others
	Forward	Side	Behind			
120(100.0)	15(12.5)	14(11.7)	74(61.7)	11(9.2)	0	6(5.0)
	103(85.8)			11(9.2)	0	6(5.0)

Table 3. Distribution of Days to Visit our Clinic from Accidental Day

Days to visit from accidental day	Total(%)
Accidental day	12(10.0)
5≥	75(62.5)
6-10	21(17.5)
11-20	7(5.8)
21≤	5(4.2)
Total(%)	120(100.0)

내원한 경우가 27명(22.5%)이었다. 또한 타 병원에서 입원치료 도중 본원에 내원한 경우도 7명(5.8%)이었다. 본원에 초진한 사례 중 외래치료 중 입원한 경우는 3명(2.5%)이었으며, 내원 후 바로 입원 치료한 경우는 43명(35.9%)이었다(Table 4).

5. 내원동기별 분포

대상 환자 120명의 내원동기를 살펴보면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74명(61.7%)의 환자 중 타 병원에서 검사만 한 후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 상 특별한

외과적 손상이 없어 한방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가 23명(85.2%)으로 가장 많았다. 타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경우는 21명(44.7%)이었으며 타 병원의 치료에 불만족하여 내원한 경우도 17명(36.2%)을 차지했다. 본원으로 초진한 환자 46명(38.3%) 중 특별한 외상 없이 한방치료를 원하는 사례는 31명(67.4%)이었으며 연고지 및 교통 관계로 초진한 사례도 12명(26.0%)이었다(Table 5).

6. 통증부위별 분포

대상환자 120명 중 통증부위 별 분포로는 頸項部位가 92명(76.7%)로 가장 많았으며 腰部部位가 83명(69.2%)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肩臂部位, 腰背部位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각각 63명(52.5%), 50명(41.7%)이었으며, 頭痛을 호소하는 환자도 36명(30.0%)이었다(Table 6).

7. 방사선 진단소견별 분포

대상 환자 120명의 X-ray, CT, MRI 진단소견별 분포로는 cervical spine sprain이 92명(76.7%)로 가장

Table 4. Patterns of Visiting our Hospital after Traffic Accident

Patterns of visiting our hospital		Total(%)
via other local hospital	radioactive examination	27(22.5)
	during adm Tx	7(5.8)
	Discharge after Adm Tx	27(22.5)
	after OPD Tx	13(10.8)
Direct visit	Adm Tx	43(35.8)
	Adm Tx after OPD Tx	3(2.5)
		120(100)

Table 5. Distribution of Motivation to Visiting our Hospital

motivation to visiting	via other local hospital		Direct visit	Total(%)
	after medical care	after radiation test		
dissatisfaction of current treatment	17(14.2)			17(14.2)
maintain pain after admission	21(17.5)			21(17.5)
preference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9(7.5)	23(19.2)	31(25.8)	63(52.5)
convenient location or easily accessible		4(3.3)	12(10.0)	16(13.3)
recommendation of other people			3(2.5)	3(2.5)
Total(%)	47(39.2)	27(22.5)	46(38.3)	120(100.0)

Table 6. Distribution of Painful parts

Partial pain	Number of patients (%)
headache	36(30.0)
neck	92(76.7)
shoulder	63(52.5)
back	50(41.7)
low back	83(69.2)
upper limb	26(21.7)
lower limb	35(29.2)
knee	27(22.5)
ankle	15(12.5)
hip	10(8.3)
chest	17(14.2)
flank	17(14.2)
elbow	20(16.7)
others	7(5.9)

복수처리 하였음. 비율은 각각의 총환자수에 대한 비율임.

Table 7. Distribution of Impressions through Radiation Test

Impressions	number of patients (%)
cervical spine sprain	92(76.7)
lumbar spine sprain	74(61.7)
straightening of cervical spine	68(56.7)
straightening of lumbar spine	80(66.7)
spinal canal stenosis	9(7.5)
spondylolisthesis	13(10.9)
compression fracture	4(3.3)
multiple fracture(rib, shoulder, skull, tibia, knee)	5(4.2)
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 of cervical spine	56(46.7)
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 of lumbar spine	43(35.9)
Intercranial hemorrhage	1(0.8)
with normal range	11(9.2)

복수처리 하였음. 비율은 각각의 총환자수에 대한 비율임.

많았으며 straightening of lumbar spine이 80명(66.7%)으로 그 다음이었다. Lumbar spine sprain이 74명(61.7%), straightening of cervical spine은 68명

Table 8. Distribution of Chief Complaint

Chief Complaint	Number of patients(%)
partial pain	120(100.0)
sleeping disorder	12(10.0)
chest discomfort	17(14.2)
dizziness	43(35.8)
headache	36(30.0)
spasm	21(17.5)
abdominal disorder	16(13.4)
nausea	6(5.0)
fatigue sign	30(25.0)
palpitaion	13(10.8)
general body weaknss	46(38.3)
discomfort, fear	19(15.9)
mental disorder	6(5.0)
edema	18(15.0)
numbness	61(50.8)
others	17(14.1)

복수처리 하였음. 비율은 각각의 총환자수에 대한 비율임.

Table 9. Periods of Admission Treatments

Days	Total(%)
7≥	64(53.3)
8-14	42(35.0)
15-21	11(9.2)
22-28	1(0.8)
29≤	2(1.7)
Total	120(100.0)

(56.7%)이었으며 방사선 진단상 HNP 소견을 보이는 사례는 cervical spine에서 56명(46.7%)이며, lumbar spine에서 43명(35.9%)이었다(Table 7).

8. 주소증별 분포

대상 환자 120명의 주소증은 모두 局所的 痛症을 동반하면서 四肢痺症 61명(50.8%), 全身無力 46명(38.3%), 眩暈 43명(35.8%) 등의 순서로 전신적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 밖에 정신, 심리적 증상인 不安, 焦燥 등의 증상도 각각 19명(15.9%), 6명(5.0%)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10. Distribution of Treatment Results along Admission Days between two Groups

Results		Group A(%)			
Days of Admission	Excellent	Improved	mild Improved	Failure	Total(%)
1-7	5(5.1)	18(18.4)	26(26.5)	9(9.2)	58(59.2)
8-14	4(4.1)	16(16.3)	9(9.2)	3(3.1)	32(32.7)
15-21	1(1.0)	2(2.0)	4(4.1)	1(1.0)	8(8.2)
22-28	0	0	0	0	0
29≤	0	0	0	0	0
Total(%)	10(10.2)	36(36.7)	39(39.8)	13(13.3)	98(100.0)

Results		Group B (%)			
Days of Admission	Excellent	Improved	mild Improved	Failure	Total(%)
1-7	0	4(18.2)	1(4.5)	1(4.5)	6(27.3)
8-14	2(9.1)	5(22.8)	3(13.6)	0	10(45.5)
15-21	0	2(9.1)	1(4.5)	0	3(13.6)
22-28	0	0	1(4.5)	0	1(4.5)
29≤	0	1(4.5)	1(4.5)	0	2(9.1)
Total(%)	2(9.1)	12(54.5)	7(31.6)	1(4.5)	22(100.0)

Group A : basic treatment, Group B : basic treatment with Sling.
 Basic treatment : acupuncture, moxibustion, cupping glass treatment, ICT, M/W, herbal medication.

9. 입원기간별 분포

대상 환자 120명의 입원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고 당일에서 7일 이내인 경우가 64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8일에서 14일 사이인 경우는 42명(35.0%)에 해당하였다. 대상 환자 120명 중 입원기간이 사고 당일에서 14일 이내인 경우가 모두 106명으로 전체 88.3%를 차지하였다(Table 9).

10. 입원기간별 치료성적 분포

대상 환자 120명의 입원기간에 따른 치료성적을 살펴보면 120례 중 기본치료만 받은 환자는 98례, 기본치료와 견인치료를 병행한 환자는 22례에 해당하였다. 기본치료만 시행한 환자 98명 중에서는 입원기간이 1일에서 7일 이내가 58명(5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기간 동안 치료성적은 微好轉이 26명(44.9%)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견인치료를 병행한 환자 22명의 입원기간은 8일에서 14일 이내가 10명(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기간 동안 치료성적은 好轉이 5명(50.0%)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기본치료만 시행한 환자 98명 중에서 입원기간이 14일 이내인 환자는 모두

90명(91.9%)으로 이 기간 동안 치료효과가 나타난 환자는 78명(86.7%)이었으며 견인치료를 병행한 환자 22명 중에서 입원기간이 14일 이내인 환자는 모두 16명(72.8%)으로 이 기간 동안 15명(93.8%)이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10).

IV. 고찰

우리나라 자동차 교통사고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도 총 213,745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6,327명, 부상자는 340,229명으로 보고되어 아직도 교통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실정인데 이로 인한 인적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¹⁵⁾.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에 따르면 뇌진탕, 염좌 등의 경상자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중상자 및 사망자 수는 소폭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⁶⁾.

교통사고 후유증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증상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소실되지 않고 남

아있는 임상증상¹⁷⁾으로서 지속적인 통증이나 동작 제한 등의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불안, 우울 등의 신경정신과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교통사고의 외상 및 편타손상으로 氣血이 凝滯하고 經絡 저애에 기인하므로 치료에 있어서 주로 行氣活血, 通經活絡, 補氣血 등의 治法이 적용된다¹⁷⁾.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에 있어서는 현대 의학의 치료법이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특별한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방사선 진단 상 정상이나 지속적인 통증을 나타내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¹⁸⁾.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한방적 치료 방법을 모색하고자 병원단위의 치료현황에 대한 최근 통계조사가 유의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동신목동한방병원 침구과에 교통사고 후유증을 주소로 입원한 환자 120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통하여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모두 120명의 환자 가운데 여자가 77명(64.2%)으로 남자 43명(35.8%)보다 많은 것은 본원의 소재지가 주거단지에 위치하여 직업군에서 제외된 주부가 상대적으로 치료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본 조사의 연령분포에 있어서 총 120명의 환자 중 20대에서 40대까지가 83명으로 전체 환자의 6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40대의 사람들이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동차의 충돌부위와 관련하여 충돌시의 승차 위치 및 안전띠의 착용여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전면충돌, 측면충돌, 그리고 전복과 같은 사고유형에서는 심한 손상 및 사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¹⁹⁾. 본 조사에서 사고 유형별 분포는 차량 간 충돌에 의한 경우가 103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정차중이나 운행중 후방추돌로 인한 경우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후 본원 내원까지의 기간별 분포는 사고 당일에서 5일 이내가 모두 87명(72.5%)으로 사고 후 비교적 초기부터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원형태 및 내원동기별 분포에서는 본원 초진환자가 46명(38.3%)이었고, 양방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는 74명(61.7%)이었다. 이 중 양방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만 하고 곧바로 내원한 환자는 27명(22.5%)이었고, 양방치료를 받았거나 혹은 받는 도중에 본원

에 내원한 환자도 47명(39.2%)에 해당하였다. 양방병원에서 초기치료를 받고 본원에 내원한 47명(39.2%)의 내원동기별 분포에서 양방치료를 받은 불만족과 치료 후 지속되는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가 38명(3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 후 초기 양방치료를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직후 한방치료를 선호하여 초진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는 31명(25.8%)이었고 양방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만 한 후 한방치료를 선호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가 23명(19.2%)인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 환자들이 초진에서 양방병원을 경유하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비교적 사고 초기부터 한방치료를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증부위별 분포로는 頸項部位가 92명(76.7%)로 가장 많았으며 腰部가 83명(69.2%)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사고 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량이 정차중이거나 운행중 후방추돌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통증부위별 분포 중에서 교통사고의 가속과 감속이라는 손상기전과 차량 탑승 자세 때문에 편타성 손상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데 경항부위의 통증은 차량 간 충돌시 경추부의 급작스런 과신전과 과굴곡에 의한 복합손상으로 발생하고, 안전벨트의 골반고정효과에 의한 결과로 요추추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20,21)}.

진단소견별 분포에서는 cervical spine sprain이 92명(76.7%)으로 가장 많았고, straightening of lumbar spine 이 80명(66.7%), lumbar spine sprain이 74명(61.7%), straightening of cervical spine은 68명(56.7%)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위의 통증 부위별 분포와도 일치하며 특별한 외과적 처치가 필요없는 단순 타박상 및 염좌로 인한 통증이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소증별 분포로는 모두 局所的 痛症을 동반하였고 四肢痺症 61명(50.8%), 全身無力 46명(38.3%), 眩暈 43명(35.8%) 등의 순서로 진신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밖에 정신, 심리적 증상인 不安, 焦燥 등의 증상도 각각 19명(15.9%), 6명(5.0%)의 순으로 나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한방치료의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이와 같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정신과적인 부분에 대한 한방적 치료의 유효성이 보고²²⁾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방치료가 양방치료에 비해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원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고 당일에서 7일

이내인 경우가 64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8일에서 14일 사이인 경우는 42명(35.0%)이었고 사고 당일에서 14일 이내인 경우는 모두 106명으로 전체 88.3%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입원기간이 1-2주 이내가 제일 많은 것은 교통사고 보험 관련 사항에 합의하는 시점이 병증 예후와 치료 종결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기간별 치료성적 분포를 살펴보면 대상 환자 120례 중 기본치료만 받은 환자는 98례, 기본치료와 견인치료를 병행한 환자는 22례였다. 기본치료만 받은 98명의 환자 중 입원기간이 14일 이내였던 90명 중에서 78명(86.7%)이 치료효과를 보였다. 견인치료를 병행한 22명의 환자 중 입원기간이 14일 이내인 환자는 16명(72.8%)으로 이 기간 동안 15명(93.8%)이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이에 대상 환자 120명에서 입원기간이 2주 이내인 106명(88.3%) 중 93명(77.5%)이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사를 통하여 교통사고 후 바로 한방병원에 초진한 경우가 120례 중 46례(38.3%)로 2002년 김⁹⁾의 조사에서 59례 중 4례(6.8%)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증가되었고, 사고 후 5일 이내 한방치료를 선택한 경우도 2002년 59례 중 9명(15.3%)인 것에 비해 본 조사 120례 중 87례(72.5%)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 후 초기관리에 있어서 한방치료를 대한 선택이 증가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대부분의 경우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특별한 외과적 손상이 없는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인 것으로 보아 다소 경미한 후유증 환자만이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실태로 교통사고 환자의 수가 비교적 제한적임을 추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양방치료는 주로 물리치료와 약물치방에 의한 국소적 통증치료에 치중하는데 반하여 한방치료는 국소적 통증뿐 아니라 교통사고 후 불안, 초조, 건망증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처치가 가능하여 양방치료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체적인 치료기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의 확대를 위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적인 후유증까지 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한방치료가 자동차보험의 범주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단일한 방병원을 표본으로 하여 대조군과의 치료효과 비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교통사고 치료 기간과 비용, 만족도에 대한 양방치료와의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동신목동한방병원 침구과에 교통사고로 입원치료한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에서 남녀의 비는 1:1.8의 비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20-40대가 모두 83명으로 전체 환자의 69.1%를 차지하며 사고 유형별 분포는 차량 간 충돌에 의한 경우가 103명(56.8%)로 그 중 후방추돌이 74명(61.7%)로 가장 많았다.
2. 교통사고 후 본원 내원까지의 기간별 분포는 사고 후 5일 이내가 75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6-10일 이내가 21명(17.5%), 사고당일 12명(10.0%) 순이었으며 내원형태별 분포에서는 본원으로 초진한 사례가 46명(38.3%),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경우가 74명(61.7%)으로 그 중 47명(39.2%)은 타 병원에서 치료한 후 내원하였고, 27명(22.5%)은 타 병원에서 방사선검사만 하고 내원하였다.
3. 내원동기별 분포에서는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74명(61.7%)의 환자 중 타병원에서 검사상 특별한 외과적 손상이 없어 한방치료를 선택한 사례가 23명(85.2%)으로 가장 많았다.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치료에 불만족하여 내원한 경우도 각각 21명(44.7%), 17명(36.2%) 순으로 나타났다.
4. 통증부위별 분포로는 頸項部位가 92명(76.7%)로 가장 많았으며 腰部部位가 83명(69.2%)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肩臂部位, 腰背部位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각각 63명(52.5%), 50명(41.7%)이었다.
5. 진단소견별 분포로는 cervical spine sprain이 92명(76.7%)으로 가장 많았고, straightening of lumbar spine이 80명(66.7%), lumbar spine sprain이 74명(61.7%), straightening of cervical spine

- 은 68명(56.7%) 순으로 나타났다.
6. 주소증별 분포로는 모두 局所的 痛症을 동반하고 四肢痺症 61명(50.8%), 全身無力 46명(38.3%), 眩暈 43명(35.8%) 등의 순서로 전신적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 밖에 정신, 심리적 증상인 不安, 焦燥 등의 증상도 각각 19명(15.9%), 6명(5.0%)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입원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고 당일에서 7일 이내인 경우가 64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8일에서 14일 사이인 경우는 42명(35.0%)에 해당하였다. 대상 환자 120명 중 입원기간이 사고 당일에서 14일 이내인 경우가 모두 106명으로 전체 88.3%를 차지하였다.
 8. 입원기간에 따른 치료성적 분포를 보면 입원기간이 14일 이내인 환자 중에서 기본치료만 시행한 90명(91.9%) 중 치료효과가 나타난 환자는 78명(86.7%)이었고, 이 기간 동안 견인치료를 병행한 16명(72.8%)에서 치료효과가 나타난 환자는 15명(93.8%)이었다.

VI. 참고문헌

1. 지정구.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2.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추나요법 진료지침서. 서울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2006 : 11-8.
3. 박태용, 이정환, 고연석, 우영민, 송용선, 신병철. 한방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 84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추나의학회지. 2005 ; 6(1) : 31-40.
4. 장영채, 박홍한, 이의용, 유충섭, 조형은. 2006년판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서울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6 : 4-39.
5. 노부래, 이은용. 교통사고후유증 입원환자 34명에 대한 임상연구. 대한약침학회지. 2006 ; 9(2) : 129-34.
6. 張中景. 金匱要略方論. 臺北 : 臺聯國風出版社. 1973 : 32-3.
7. 巢元方. 諸病源候論. 臺北 : 國立醫學研究所. 1977 : 86-90.
8. 李梴. 醫學入門. 서울 : 高麗醫學. 1989 : 477.
9. 김봉찬, 한을주, 이영준, 이명중. 한방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2 ; 12(1) : 31-9.
10. 신용승, 백종배, 김종훈, 최정림, 김덕호. 교통사고 후유증관리에 관한 한의학적 임상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6) : 61-75.
11. 김선엽, 백인협. 복횡근 강화 운동이 체간 신전 굴곡시 척추분절 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03 ; 10(1) : 63-76.
12. Kirkesola G. A concept for exercise and active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SET article. 2000 ; 5 : 210-6.
13. 윤일지, 오민석, 송태원. 교통사고 후유증 112례에 대한 분석.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8 ; 8(1) : 317-26.
14. 강재희, 장석근, 이현, 이병렬.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 환자 37례에 대한 임상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3) : 180-91.
15. 교통사고 통계분석.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 서울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7 : 73.
16.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서울 : 보험개발원. 2004 : 84.
17. 이은지, 오민석, 송태원, 이철완.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방요법.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7 ; 7(1) : 218-27.
18. 허성규, 차운엽. 교통사고 환자의 피부저항변이도에 관한 Pilot Study.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8 ; 18(2) : 119-30.
19. 황인우, 전영오, 진태호, 이재백. 교통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전방좌석 탑승자의 손상 양상. 대한응급의학회지. 2006 ; 15(6) : 495.
20. 김민아, 박용진. 교통사고후유증(편타성 손상)에 대한 침구치료의 접근. 대한침구학회지. 2000 : 17(3) : 75-86.
21. 이주강 역. 교통사고 후유증 Whiplash injuries. 서울 : 대한추나학회출판사. 2000 : 1, 29-31, 73-5, 328, 458-9.
22. 고경모, 최성훈, 김재수, 박서영, 이윤규, 이윤경, 이경민, 이봉호, 임성철, 최홍식, 이은경, 정태영, 서정철. 교통사고 후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후유증 환자에 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7 ; 24(6) : 63-8.